

인도 : 이영제 목사

목	도	다	같	이
기	원	인	도	자
찬	송 167장	다	같	이
교	독 29번	다	같	이
신	앙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233장	다	같	이
기	도	인	도	자
성	경 말4:1-2, 눅1:78	다	같	이
특	송			
설	교 예수님은 누구 신가?	이	영	제
		(9. 나의 돌는 해이신 예수님)			
찬	송 188장	다	같	이
헌	금	다	같	이
봉	헌 기도	인	도	자
광	고	인	도	자
찬	송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다	같	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축	도	인	도	자



중국선교여행(8월20-23일)을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세계선교정보연구원 파키스탄(5명) 선교여행 다녀왔습니다.

24시간 릴레이 중보 기도자

매일1시간 : 오전6시(차영숙) / 오후1시(이영제) 6시(김호선) 유동(이창걸)



주앙교회 5대 실천강령

- ◇ 24시간 쉬지않는 릴레이 기도로 성도 자신이 성령받고 교우와 선교사를 위해 중보기도한다.
- ◇ 본 교우는 모두 주 예수그리스도를 바라고 예배하여,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
- ◇ 모든 교회재정(십일조, 감사, 선교헌금 등)의 지출은 선교비를 최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 선교에 주력하는 교회로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여 오는 세대에게 복음과 선교정신을 물려준다.
- ◇ 교회 내 모든 기관은 선교 체제로 조직 운영하며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으로 운영한다.

주양교회 24시간 릴레이 기도제목

○ 주양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24시간 릴레이 기도팀이 하루속히 완성되도록
교회의 파송선교사(김형주, 정00)님을 위해서
중국의 00교회와 리00전도사님을 위해서(방문을 위해서)
KCM 파송 및 협력선교사님을 위해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피아노 반주자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양교회 가족 모두가 주님의 축복으로 평안할 수 있도록

○ 이영제 목사님을 위한 기도제목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가 넘치도록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위해서
서울북노회 지도자 아카데미(드림교회) 강의(9월 8일),
중소교회 목회자 세미나(만나교회) 강의(9월 15일)를 위해서

○ KCM을 위한 기도제목

인터넷의 단비편지가 잘 준비되며, 전도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팀이 잘 운영되도록
세계선교정보연구원 모임이 잘 활성화 되도록

○ 해외선교를 위한 기도제목

세계의 한국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사단의 방해가 물러가며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아직까지 복음을 한번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을 위하여
해외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국내의 선교단체들을 위하여

○ 민족을 위한 기도제목

민족 회개와 종교혼합주의, 미신, 무속 타파를 위해서
영적분별 능력과 영적 승리를 위해서
한국경제회복을 위해서와 실업자, 근로자 문제를 위해서
반부격차 해소와 경제윤리 회복과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위해서
북한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식량난과 핵포기를 위해서

○ 가정을 위한 기도제목

부부관계가 회복되며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하도록
가정폭력이 사라지고 가출과 탈선이 사라지도록



주일오후 2시 예배 / 히브리서 주석강해 설교

이영제목사가 직접 연구한 주석자료를 기초로 강해설교 합니다.

8:1-6 새 언약의 증보자

1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 κεφάλαιον(케팔라이온)은 “요점, 핵심”을 의미하는 말로 저자는 새로운 논리로 진행해 가기 위한 ‘요점’ 정리인 것이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위엄” μεγαλοσύνης(메갈로쉬네스)과 “보좌” θρόνου(드로노스)를 함께 언급함으로 그리스도의 뛰어난 대제사장직을 통한 지속적인 왕적 능력과 통치를 가리킨다. 이 보좌는 열두제자에게도 약속하셨다(마19:28). 또한 이 단어는 계시록에서 22절에 걸쳐 기록되었다.

2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께서는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신 것이며 하나님의 성소와 장막에서 사역하고 계신다. “부리는 자” λειτουργός(레이투르고스) 공적인 일군을 가리키는 말로 “은혜를 베푸는 자”란 뜻이다. 이 말은 제사장 직에만 사용된 것은 아니고 신약에서 공적 예배의 여러 형태에 사용되고 있다(눅1:23, 롬13:6, 고후9:12).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대제사장의 직분은 일년에 한번씩 속죄제를 지내기 위해서 세운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드릴 것이 있는 분이다. 그러나 저자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음에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는다. 이것은 저자의 독특한 용법이다. 본 절에서 설명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전장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μὲν(멘) 뒤 부분과 대조하며 반어적(反語的)인 용법으로 **이는 율법을 좇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땅에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땅에서 제사장이 되실 필요가 없으셨다.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저희가” οἱ τῖνες(오히티네스) “누구든지” 땅에서 하던 제사가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하늘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비하면 그것은 단순한 “모형과 그림자” ὑποδείγματι καὶ σκιᾷ(취포데이그마티 카이 스카이아) “전시하는 것과 그늘”에 불과한 것이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산에서 모세에게 보이신 많은 광경이 있었다(출25:40, 출26:30, 민8:4).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지었다고 해도 그것 역시 하나의 상징적인 모델을 지은 것이며 언젠가는 대체되어야 할 것이었다.

무거운 짐을...



이영재 목사
주암교회 담임
김류미선교회 대표

6.25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여름날 미군이 트럭을 몰고서 경상도 두메길을 넘어가는데

그 길에 어떤 아주머니가 큰짐을 머리에 이고 가더라고요.

한 참 여름이라 그냥 걸어가도 땀이 나는데 큰짐을 머리에 이고 걸어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미군이 딱하게 보였던지 차를 세우고 내려서 차에 태워주고 갔습니다.

그 미군이 한참을 가고있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백미라(back-mirror)로 뒤를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트럭 위에서 그냥 짐을
머리에 인체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가 뒤틀 때마다 머리방아와 엉덩방아를 찧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도 기가막혀서 아주머니께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이 "아이고 이 몸을 실어다 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이 짐까지 어떻게 폐를 끼칩니까! 저도 그 정도의 체면은 있는

사람입니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내 짐을 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주암교회 파송, 협력하는 선교사

남아프리카공화국 김형주 선교사 / 필리핀 정형구 선교사
베트남 정00 선생 / 중국 리00 전도사 / 인도 초띠옥이 자매
파키스탄 정00 선교사 / 미국 김능수 전도사

예배시간 안내

주일 오전 11:00 /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 찬양, 성경강해

새벽 5:00 / 새벽예배

수요 오후 7:30 / 삼일예배(주제별 성경공부)

금요 오후 9:00 / 심야예배(찬양과 기도집회)





제목 : 예수님은 누구 신가?
(8. 나의 왕이신 예수님) / 본문 : 마 16:21-28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왕이 올 것을 기대했지만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가 그 같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을 위한 왕,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나올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지만 현재 세계를 사실상 지배하는 미국의 왕(대통령)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말 한마디면 세계의 어느 곳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왕을 유대인들이 원한다면 현재 미국의 왕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런 왕을 내려보내지는 않으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을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보았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습적인 왕통은 늘 도전을 받았고 그들은 다른 왕이 어디서 나온다는 소문만 있어도 모조리 죽어버렸습니다.

헤롯왕은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극도로 쫓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왕좌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여 순진 무구한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B.C. 4년 3월) 임종을 4-5일 앞두고 후계자로 정해졌던 장자 안티파터의 처형을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버리고 후계자로 자처하며 행세하는 꼴이 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그의 아들 셋을 모조리 죽이고 자신도 몇 일 있다가 죽었습니다. 헤롯은 후계자로 지명했던 세 아들 안티파터, 알렉산더, 아리스토틀루스를 죽인 후 새 후계자로 아켈라오를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지명만으로 왕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재가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로 떠나갔습니다.

헤롯왕이 두 살 어린이를 죽인 사건은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던 세 사람도 힘이 없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 될만한 사람으로 얼른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주의 영광의 나라가 오면 자기들에게 좌의정, 우의정 자리를 달라고 예수께 못박아 두려고 했습니다(마20:20-21, 막 10:35-37).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마20:22) 하셨습니다. 그리고 26-27절에 으뜸이 되고자 하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고 하십니다. 물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까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다음의 말씀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24-26절)입니다.

지난주(2003.8.3) 설교 요약

대한예수교장로회

주 앙 교 회

JOOANG PRESBYTERIAN CHURCH

표어

말씀으로 은혜가 가득한 교회

기도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선교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

봉사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
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사 40:31)

담임목사 이 영 제

Pastor Lee, Young Jae

435-050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73-3(제일프라자 5층 본당, 사무실 4층)

교 회 : (031)399-7706 선교회(KCM) : (031)399-7705

목사관 : (031)398-7702 핸드폰 018-213-7702

Homepage : <http://kcm.co.kr> Email : webmaster@kcm.co.kr